



삶의 향기

함께 이룬 10년, 같이 나갈 미래 100년

최 유 지

전북동부문화재돌봄센터 모니터링 팀장

우리 전라북도에는 현재 총976개의 유형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유형의 문화재에는 목조건축물, 석조 건축물, 천연기념물, 명승, 사적지, 동산문화재 등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다.

또한 지정된 문화재 외에도 아직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향토유산 등도 다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문화유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 까? 오늘은 문화재관리의 보이지 않는 손, 문화재돌봄센터를 소개하려고 한다.

‘문화재돌봄사업’은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제정을 계기로 2010년 처음 시작된 문화재보존을 위한 상시적 예방관리사업이다. 문화재에 발생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경미한 훼손에 대해 수리를 실시하며 문화재와 주변에 쾌적한 보존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가지정, 시도 지정,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경미수리, 일상관리 활동을 실시하여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문

화재 관람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전북도의 경우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부권역 8개지역을 (재)문화재아우터리연구소 전북동부문화재돌봄센터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2년째 관리하고 있다.

센터는 문화재 관련 전공자들과 문

전라북도 문화유산 돌보고

가꾸는 문화재 돌봄 사업

화재수리기능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문화재의 재질 및 종별 특성에 따라 정기적 모니터링과 전문 모니터링, 경미한 수리, 일상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국보, 보물의 정기적인 현황조사부터, 주소조차 찾기 어려운 깊은 산속의 문화재를 찾아 정비하는 일까지 양치와 읍지의 문화재 모드를 가꾸고 돌보고 있다.

또한 매년 기초지자체와의 문화재 현황공유를 위한 파트너쉽스킵제 운

영, 문화재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 재난대응훈련 등을 통해 문화재 안팎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내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활동 외에도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등 범지역적인 재난에도 빠르게 대응하여 문화재119로서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각인시켰으며 도내에 폭우, 태풍 등 큰 재난이 있을 시에도 빠르게 현장을 확인하고 대처하여 문화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11년간 민관이 협력하여 숨가쁘게 달려온덕에

문화재의 사전예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현재, 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도 길길은 멀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내의 숨은 문화재를, 아직 관리가 미흡한 도읍의 손길이 필요한 문화재를 까지 소중히 돌보고 가꾸어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열심히 뛰어보겠다.

독자의 창

김치냉장고 화재 주의하자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은 단연 김치입니다. 예전 마당 한켠에는 김장독을 묻고 장독에 김치를 보관하였으나 사회가 변하고 기술의 흐름에 따라 김치냉장고의 보급이 시작되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사시사철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숙성방법에 대한 기술연구가 이루어져 용도가 다양한 김치를 쓰임에 따라 보관하고 적정하게 익혀 주어 우리의 밥상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가정의 필수 가전제품이 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최근 김치냉장고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김치냉장고의 관리 또한 주의가 요구되고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특히 근래 10년 이상 된 제품에서는 문제가 되어 더욱 관리의 중요성

이 대두되는 실정인데 김치냉장고를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냉장고 뒤면에 먼지가 쌓여 청소를 게을리 한다면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주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쌓인 먼지가 많아져 냉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팬이 돌아 냉매를 식혀주어야 하는 장치가 적정온도를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욱 과도하게 돌아가게 되어서 모터가 과열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위험성이 증가하여 화재로 발전할 수 있어 김치냉장고의 먼지 제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치냉장고의 먼지 제거 요령으로 먼지 전기코드를 뽑고 이후 냉장고 뒤

편을 열어 청소기로 먼지를 흡입 후 칫솔 등으로 먼지를 털어 준 다음 깨끗한 수건으로 다시 한번 닦아내는 과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김치냉장고를 들어내고 다소 힘을 들이는 과정이지만 정기적인 청소를 하고 김치냉장고를 더욱 그 기능을 유지하며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3년에 한번 정도 정기 점검을 받아야하고 습한 공간보다 따뜻한 실내에서 보관하여 화재의 원인을 미리 제거, 안전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편리함을 주고 필요한 가전제품을 올바른 관리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하고 지금부터 관리는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떤가요?

/박지환(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

기고

지방정부 국가 변화 발맞춰 공모사업 응모해야



정 상 섭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이나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해 선정된 기관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지방정부 공모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국제 및 국가의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기초 환경조사, 향후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될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의 미흡, 행정절차의 무시, 선심성 공적을 내기 위한 응모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면 운영상 큰 문제가 예견되는데도 직원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의원에게 애검복검목을 매고, 의원 역시 지역구에서 정치적 지지를 위한 소지역주의와 냉정하게 반대할 수 없는 온정주의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실효성 없는 공공시설물들이 지어진다. 인구가 늘 것을 예상하고 도시 외연 확장으로 지어진 외곽의 공공시설들은 이용자는 거의 없고 관리 직원만 상주해, 운영부실과 관리비용 과중으로 들자니 무지고 놓자니 아까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둘째,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늘어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전북도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은 2017년 51.5%, 2018년 68%, 2019년 70%로 지방비 비율이 갈수록 커져 우려가 많다.

최근 정읍의 모 신문도 “국가 돈으로 새로운 국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나쁠 이유는 없지만 시설의 용도가 적정성, 활용도 등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는가의 속고는 꼭 필요하다” 또한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매사를 꼼꼼하게 투자 대비 그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보고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했다면 선불리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분별, 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읍시의회도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율 과중과 운영비 부담, 부실사업 문제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심의, 사무 감사 때마다 지적해 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실 언론이나 의회도 지금까지 공모사업의 문제점만 제기해왔지만, 정자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은 거의 없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최근 기존의 공모사업과는 다른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성공적인 ‘지역균형 뉴딜’을 위해 ‘지역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모사업이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역을 지원하는 구조였고, 사업의 형태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틀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 예산만 확보하려 했지만, 정자 사업을 따온 뒤에는 뜻있

는 변화도 없고 주민들의 관심도 못 받는 상황이 반복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균형 뉴딜이 되려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보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공모사업이 이제는 시·도 간 경계를 그대로 둔 채 개별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불가능한 환상을 버리고, 광역권을 넘어서는 교통망 확충이나 경제협력, 공동 관광자원 개발 등 서로가 득권을 내려놓고, 행정통합과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유연한 광역권 발전계획을 통해서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정읍시도 공모사업에 대한 국가의 변화에 맞춰 공모사업의 틀을 KTX, SRT의 정차역을 갖춘 전북 서남권의 교통 거점지로 유동인구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생활권이 유사한 지자체 간 광역권 행정통합을 예상해 서남권 도시들을 묶는 연계 중심 도시로 넓게 짜야 한다.

아울러 정읍시가 서남권 중심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그동안 인구증가를 예상한 관행화된 확장적 도시계획의 공모사업에서 벗어나 소멸도시 위기를 극복할 적정규모의 알찬 도시계획 공모사업으로 과감한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록 집행부가 수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확보 성과를 냈어도, 별로 실익 없는 사업조차 의외가 당연히 지방비를 매칭 해줘야 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고, 누구를 위한 공모사업이냐는 세간의 비판을 피하며, 부실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현재 정읍시가 처한 낮은 출산율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인구감감,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줄어드는 가처분소득과 초고령화(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8.2%)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주거지의 교외화(郊外化)로 인한 도심상권 공동화(空洞化),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위해 환경 해소, 시내에 각종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통해 관광 유동인구 유입으로 세외수입을 늘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재량성 가용예산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적 위주의 관행화된 공모사업 응모가 아닌 국가의 변화추세와 정읍의 특성에 맞고, 향후 그 사업이 유지관리에 경쟁력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공모사업만 응모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새전북신문 www.sjbnews.com

5491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 새전북신문 BD

발행·편집인 박명규	인내 / 063) 230-5700	FAX / 063)231-832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광고 / 063) 230-5714	구독&독자서비스부 / 063) 230-5712	
인쇄인 우순금	제보 사회부 / 063)230-5850	경제부 / 063)230-5840	문화교육부 / 063)230-5818
	정치부 / 063)230-5821	사실팀 / 063)230-5842	자치행정부 / 063)230-5840

2000년 10월 25일 창간(등록일자 : 2000년 10월 23일) 등록번호 전북가-0004(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구독신청안내

063) 230-5712

중부	인후1동, 인후2동 일부, 인후3동/노동부 청사, 전주고려병원, 인후위브아울럼, 인후 한신휴, 유일여고, 기린초, 인후초, 아중리 일대.
	010-8640-6855 / 246-6855
서전주	서신동, 효자동4가(서곡지구)/ 롯데백화점, 이마트, KT전북본부, e편한세상, 서신초, 한일고, 서신중, 전주서중, 여울초, 서일초, 서신동 일대.
	010-6278-5085 / 276-0034
평화	평화동1가~3가, 동서학동, 서서학동/전주교대, 전주교도소
	010-8883-5498 / 010-8858-9456
덕진	인후2동 일부, 송천동, 덕진동, 호성동, 금암동, 전미동/우아동1가, 우아동2가, 전북대, 전북대병원, 고숙터미널, 전주역, 전주동물원, 전라고, 솔내고, 우아동3가, 용진동, 완주군청
	010-4611-8069
팔복	팔복동, 동산동, 여의동, 반월동, 장동, 조촌동, 고랑동, 성덕동, 만성지구/ 덕진경찰서, 월드컬경기장, CBS전북방송, 전주한지박물관
	010-8627-6325 / 214-0300
남전주	중화산동1가, 중화산동2가 일부, 완산동/예수병원, 전주병원, 신흥중, 신흥고, 기전대학, 화산체육관, 군영여고, MBC, 화산풍림, 중화산광진, 석정수펠리스, 남양왕실, 한신휴
	010-8883-5498 / 010-8858-9456

서 부	경원동, 고사동, 중암동, 고동, 전동, 진북동, 봉남동, 다가동, 태평동, 서노송동/ 전주시청, 덕진구청, 시교육청, 완산경찰서, 한옥마을, 중앙시장, 남부시장, 동국해성, sk뷰, 혁신도시	
	010-9397-2328 / 273-1008	
중화산	효자동1가 일부, 효자동2가~효자동4가, 중화산동/ 도청, 경찰청, 효자신시가지, 전주대, 비전대, 전주박물관	
	010-2799-1237 / 237-5863	
효 자	효자동1가 일부/ 삼천1동~삼천3동, 삼산고, 서도프라자, 혜성고	
	010-8883-5498 / 010-8858-9456	
완 주	봉동읍 봉동 전역, 3공단	삼례읍
	010-8824-9388	010-4013-4853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

새전북신문이 쓰는 大韓民國이 읽습니다.